

임실필봉마을굿 '당산풍월' 눈길

필봉마을 당산나무서 12~14일 진행...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진도 셋김굿' 등 3단체 연속 공연

임실군 필봉마을굿축제가 자랑하는 인문생태콘서트 '당산풍월'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에 걸쳐 필봉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근 400년 가깝게 마을 풍물굿을 전승해 온 필봉마을의 인문 전통을 더욱 넓게 '나눔'해 보려는 의도로 기획되었으며, 2018년 제23회 필봉마을굿축제를 기점으로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필봉마을 수호신인 당산나무를 배경 삼아 과거와 현재, 전통과 창작을 경계 없이 오가는 기무악(歌舞樂) 예술과 문화, 예술비평, 마을과 사람의 서사 등으로 다양하게 차려 온 당산풍월은 친자연성과 함께 문화다양성을 구현한 프로그램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해마다 성장을 거듭한 당산풍월은 올해 '당신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세 단체 진도 셋김굿, 발탈, 제주철머리당굿의 연속 공연으로 신과 함께 관객과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다.

12일에는 '산자를 위한 셋김'이라는 제목으로 진도셋김굿 공연을 선

있다. 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 해안가 마을의 분향당에서 비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맞이하여 풍어와 해상 안전 등 해녀들의 풍성을 기원하는 곳이다. 이날의 당산풍월은 '신들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달고 용왕신을 맞아들이기 기원하는 요왕맞이를 보여 줄 예정이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필봉마을굿축제는 국가무형문화재(11-5호) 단체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연례 행사다. 이 단체는 농악(풍물굿)이라는 인류무형유산을 품은 마을사회의 역사, 생활, 문화 전통, 공동체 심성과 예술 감수성을 상징하는 마을당산을 외부세계를 향해 활짝 개방하고 '이 시대, 이곳의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는 풍월의 현장을 벌여 놓음으로써, 현대사회 속 새로운 문화 중심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제27회 필봉마을굿축제의 인문학 콘서트 '당산풍월'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www.pilbong.co.kr, 페이스북 북 필봉농악 페이지 또는 필봉문화촌 전화 문의(☎ 063-643-1902)로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관내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

무직산·채계산·용결산·아미산·장덕산대상 실시

순창군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직산, 채계산, 용결산, 아미산, 장덕산 등 관내 생활권 및 주요 명산 5개소에 대한 등산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채계산, 용결산 등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명소의 등산로 정비에 나서 노후화된 데크 길과 험터 시설물을 보수하고, 이정표와 안전난간 그리고 주요 명소의 안내판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공기청정도시의 안전한 산행 환경을 만들고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각 등산로마다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등산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SNS 등 입소문을 통해 전국에서 순창의 명산을 찾는 관광객

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특히 새로운 등산로의 확장보다는 기존의 등산로를 보수하고 등산객 입장에서의 편의시설을 확대해 외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순창을 처음 찾는 사람들도 쉽고 안전하게 등산 및 각종 명소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의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등산로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등산객의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신속한 보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순창의 산을 찾는 등산객이 크게 증가한 만큼 꼼꼼한 정비를 통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사업 활성화 방안 위한 토론회의 장 마련

남원시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위원장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업 완료지구 위원회의 운영현황 청취와 운영인력 부족에 따른 활동비지원 건의 및 행

정의 지원방안 마련 예정에 따른 시의회 협조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써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 인구유지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남원시는 2005년 훈북문화권역 종합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 지구에 대해 사업완료 및 추진 중에 있다.

남원시 이명현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그간 완료지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아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 타 시·군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고 남원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외식업소 음식문화 개선교육 실시

외식업 성공전략 교육·업소별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순창군이 음식점의 변화하는 외식문화 트렌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일부터 외식업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외식업소 경영주로서 갖춰야 할 친절의식 △외식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서비스 전략 △외식업 트렌드에 따른 성공전략 및 우수업소의 성공사례 △업소별 찾아가는 현장 1:1 맞춤형 컨설팅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순창군 외식업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도 진행하며 순창군의 음식문화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및 재심사 시 부가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위생물품 우선지원 등 음



식문화 개선에 참여한 만큼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외식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교육인 만큼 참여한 업소들의 외식개선으로 차별화되고 순창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순창군 음식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운영

남원시가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12개소 13대 중 8개소 9대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4시간 이용 가능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금지면 △인월면 △금동 △남원의료원 △MC새마을금고 본점 △남원농협도동 지점 △남원세무서에 위치해 있다. 현재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늘

어난 비대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 급등과 노약자에 신규 설치했으며, 내년에도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건축, 국제증명 등 89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16종의 근로복지공단 관련 증명서류, 여권 관련 증명서 6종 등 총 111종을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과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점자 키패드, 화면 확대 기능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소식통

남원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남원시보건소에서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원 6명을 채용했으며, 조사원은 보건소장이 발급한 조사원증 패용하고 붉은색 티셔츠를 착용, 표본가구를 방문해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태블릿PC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비만, 식생활, 정신건강, 구강건강, 개인위생, 안전의식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 및 관리 수준, 삶의 질 등을 포함한 총 19개 영역 188개 문항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 파악, 지역보건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등 지역사회 보건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면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공직기강 확립

선제적 대응 추진

남원시는 여름 휴가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공무원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휴가철 및 추석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과 공직전환기를 맞아 복무기간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할 계획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이면개입, 민원인에 대한 소극행정, 일탈행위 등을 감찰하게 된다. 또한 올해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전예방을 위한 추석명절 공직윤리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읍주윤전, 상봉초, 금품?향응수수 등 3개 비위행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훼손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